

## ■ 2017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심의 총평

- 일시 : 2017. 1. 20(금) 15:30~18:3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1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화영, 우찬제, 이하석, 장영주, 정지아

기간 문학 단체에서 발행하는 문예지 및 문학 활성화를 위한 단체 기획 사업에 지원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지원 요청에 대한 심의가 꽤 까다로웠다.

먼저, 심의과정에서 ‘본인이 심의대상사업 또는 신청주체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타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심의 회피제도에 따라 심사위원 가운데 두 사람은 각자 해당 단체사업의 심사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 신청의 자격이 ‘전국 단위 규모의 국내 주요 비영리 기간 문학단체’로 한정됨으로써, 많은 지원신청 단체들과 잡지사들이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다. 즉 기간 단체의 지역 지부 또는 지회이거나 지역에서의 특정 문학 활동, 그리고 기간 문학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 단체와 단순히 잡지만을 발간하는 사업들, 지역 별로 치러지는 제반 문학 활동 등의 결격사유로 총 46개의 지원신청 사업 가운데 많은 수가 제외됐다. 앞으로 이 사업 지원에 대한 홍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확실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지원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심의는 무엇보다 기간단체 발행 기관지의 충실성과 기획 프로그램의 차별성, 문학 향유 층의 확대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랐다. 아울러 사업운영의 개선 노력과 기획사업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검토했다. 지원 심의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30%), 문학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 효과(30%) 등의 채점 기준에 의한 채점제로 이루어졌다.

지원 예산은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어서 이를 배분하는 일도 아주 신경이 쓰였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웠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특정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예년처럼 지원 규모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공고에 제시한 단가표를 기준으로 하되, 문예지 발간 및 기획사업 규모와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즉 문예지(기관지) 발간은 월간과 격월간, 계간, 반년간으로 나누고 다시 채점결과를 반영하여 A,B,C급으로 차등 지원됐다. 기획 프로그램 지원은 대규모 문학행사, 학술행사, 소규모 문학행사 등으로 나누어 역시 A,B,C급으로 지원이 논의됐다.

이 사업은 문학 분야 주요 기간단체의 문예지 발간과 기획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기존 단체들의 문예지 즉 기관지 성격 문예지 출간에 대해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단체가 출범한 초기에는 격려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할지라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단체는 자체의 운영 자금으로(자급자족으로) 발간이 이루어지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보다는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일반 문예지의 보다 많은 지원으로 지원 체계가 전환되는 게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